

■ 신주쿠구 벤덴초 107 ☎ 03-5273-1778 (월·화·수(선시물 교체 기간 등의 휴관 기간 있음))
 ☎ 11:00~17:30(입장은 일시 지정 예약제) ☎ 일반 1,100엔, 초·중·고등학생 600엔
 📖 와세다역(지하철) 도보 7분, 우시고메 아나기초역(지하철) 도보 6분

지역

국제적 색채가 짙은거리



도쿄에 있으면서도 이국적인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있는 오오쿠보 거리입니다. 신오쿠보역에서 동서로 뻗은 대로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음식점과 식료품점, 잡화점 등이 들어서 있어 밤낮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해외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은, 국제적인 색채가 짙은 거리입니다.

지역

넛포구미 하쿠닌타이(鉄炮組百人隊)의 거리



지금부터 약 400년 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에도에 막부를 세웠을때 에도 서역을 경비하기 위해 넛포구미(소총부대) 10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을 현재의 하쿠닌초에 정착시킨 것이 '하쿠닌초(百人町)'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넛포구미의 신앙을 모은 '가이쵸이나리 신사'(皆中稲荷神社)란 명칭은 '가이쵸(모두 명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도 넛포구미가 봉납한 도리이, 데미즈야, 등등들이 신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역

악기의 거리



오오쿠보 주변에는 2차대전 이전 독일 음악가와 일본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많이 거주하여 '음악의 거리', '악기의 거리'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악기전문점과 중고악기점, 스튜디오 등이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해외 아티스트들이 일본 방문할 때 자주 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악기를 비롯하여 악기수리점과 공방도 많아 많은 명장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